

부산대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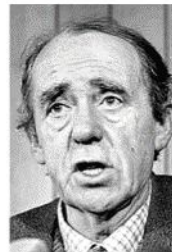
〈독일 대표 작가〉

20일부터 누마루서 사진 등 전시
23일엔 오디토리움서 영화 상영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 하인리히 뵐(사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한국하인리히뵐학회와 부산대 독어교육과는 오는 20~26일 부산대에서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 기념주간'을 개최한다. 하인리히 뵐은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로,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한 사회와 인간에 관한 작품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네 차례 부상을 당했으며, 전쟁 참전 경험을 작품 속에 많이 녹여 전후 문학의 대표 주자로 떠올랐다.

특히 반군국주의자로서 문학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현실의 변화를 꾀하고



자 했으며, 197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하인리히 뵐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오는

20~26일 부산대 대학문화원 누마루(교수회관 3층)에서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를 열어 관련 사진과 영상, 서적 등을 전시하고, 23일 부산대 새벽별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그의 작품을 영화화한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상영한다.

또한 24일에는 부산대 대학문화원 누마루에서 부산대 정인모(독어교육과) 교수가 '하인리히 뵐의 문학 세계'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한다. (051)510-1614 김현주기자

노벨문학상 작가 독일 하인리히 뵐, 부산대서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한국하인리히뵐학회·부산대 독어교육과 공동주최 10.20~26일 기념주간 개최
전시회·영화상영·특별강연·학술문화제 등 작가 생애·작품 다양하게 소개

2017.10.19.(목) 10:44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을 맞아 부산대학교에서 한국하인리히뵐학회와 부산대 독어교육과가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 기념주간」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부산대는 20일부터 26일까지 학내 대학문화원 누마루와 새벽별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대는 올해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 1917-1985)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로 전시회와 영화상영, 특별강연, 학술문화제 등을 마련해 그의 생애와 문학적 궤적을 소개할 예정이다.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의 경우 20일부터 26일까지 대학문화원 누마루(농협 3층)에서 열린다. 「하인리히 뵐 -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저항의 미학'」을 주제로 사진과 영상·서적 등이 전시된다.

‘영화로 만나는 하인리히 뵐’ 행사는 23일 오후 3시 30분 새벽별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다. 상영작은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이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중 언론지의 폭력적인 보도 태도를 비난하고 있는 이 작품은 ‘부산대학교 10.16부마민주항쟁 기념행사’ 영화제 프로그램에도 포함돼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별강연’은 24일 오후 2시 30분 대학문화원 누마루에서 정인모 부산대 독어교육과 교수(학과장)가 연사로 자리해 <‘살만한 나라, 살만한 언어’-하인리히 뵐의 문학세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정인모 교수는 석사 학위 논문인 「하인리히 뵐의 “어느 어릿광대의 견해” 연구」와 박사 학위 논문 「하인리히 뵐 소설의 인물상」 외에도 20편이 넘는 하인리히 뵐 관련 논문을 발표한 전문가로, 한국하인리히뵐학회를 역임한 바 있다.

‘특별강연’과 함께 ‘학술문화제’가 24일 오후 3시부터 대학문화원 누마루에서 열린다. ‘하인리히 뵐’을 주제로 학생 발표, UCC상영, 골든BÖLL(뵐)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하인리히 뵐은 『검은 양들』로 1951년에 ‘그룹 47’의 문학상, 『어느 어릿광대의 견해』,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로 1972년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1971년 국제 펜클럽 회장이 되어 박해받는 문인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으며, 1978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시국사건으로 투옥된 김지하 시인의 석방을 청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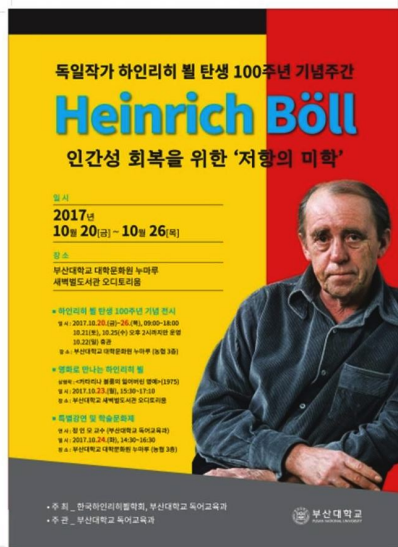
그가 살았던 생의 발자취를 따라 부산대는 이번 행사의 부제를 「하인리히 뵐 -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저항의 미학'」으로 정했다.

하인리히 뵐은 반 군국주의자·가톨릭 좌파로서 작품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현실 변혁을 꾀했다. 희생자와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애정과 도덕적 구원을 준 그의 작품과 생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부산대는 밝혔다.

머니투데이

부산대, 노벨문학상 獨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 행사

2019.10.19.(목) 15:41 권현수 기자



부산대학교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학내 대학문화원 누마루와 새벽별도서관 1층 오디오리움에서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하인리히뵐학회와 부산대 독어교육과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부산대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 전시회와 영화상영, 특별강연, 학술문화제 등을 마련해 그의 생애와 문학적 궤적을 소개한다.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대학문화원 누마루(농협 3층)에서 열린다. '하인리히 뵐 -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저항의 미학'을 주제로 사진과 영상·서적 등이 전시된다.

영화로 만나는 하인리히 뵐 행사는 오는 23일 새벽별도서관 1층 오디오리움에서 개최된다. 상영작은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이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중 언론지의 폭력적인 보도 태도를 비난하고 있는 이 작품은 부산대 10.16부마민주항쟁 기념행사 영화제 프로그램에도 포함돼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별강연은 오는 24일 대학문화원 누마루에서 정인모 부산대 독어교육과 교수가 연사로 자리해 '살만한 나라, 살만한 언어-하인리히 뵐의 문학세계'를 주제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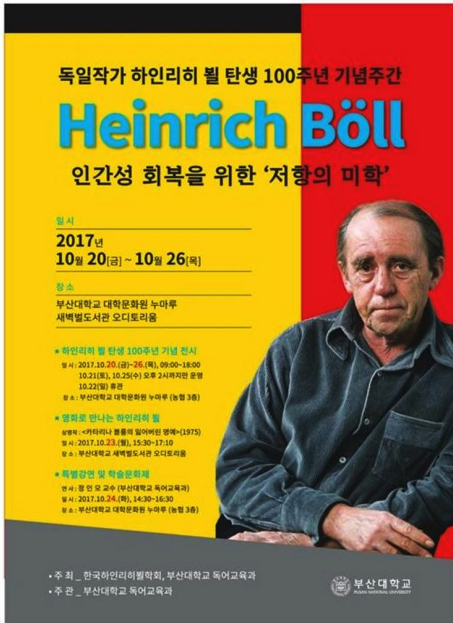
정인모 교수는 석사 학위 논문인 '하인리히 뵐의 어느 어릿광대의 견해 연구'와 박사 학위 논문 '하인리히 뵐 소설의 인물상' 외에도 20편이 넘는 하인리히 뵐 관련 논문을 발표한 전문가로, 한국하인리히뵐학회장을 역임했다.

특별강연과 함께 학술문화제가 24일 오후 3시부터 대학문화원 누마루에서 열린다. 하인리히 뵐을 주제로 학생 발표, UCC상영, 골든BÖLL(뵐)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하인리히 뵐은 '검은 양들'로 지난 1951년에 그룬 47의 문학상, '어느 어릿광대의 견해',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로 1972년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獨 하인리히 뵐 부산대서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다채’

2017.10.19.(목) 10:48 디지털미디어본부 기자 multi@busan.com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을 맞아 부산대학교(총장 전호환)에서 한국하인리히뵐학회와 부산대 독어교육과가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 기념주간'을 공동으로 마련,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학내 대학문화원 누마루와 새벽별도서관 1층 오디오리움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대는 올해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 1917-1985)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로 전시회와 영화상영, 특별강연, 학술문화제 등을 마련해 그의 생애와 문학적 궤적을 소개할 예정이다.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의 경우 20일부터 26일까지 대학문화원 누마루(농협 3층)에서 열린다. 하인리히 뵐 -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저항의 미학'을 주제로 사진과 영상·서적 등이 전시된다.

'영화로 만나는 하인리히 뵐' 행사는 23일 오후 3시 30분 새벽별도서관 1층 오디오리움에서 개최된다. 상영작은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이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중 언론지의 폭력적인 보도 태도를 비난하고 있는 이 작품은 '부산대학교 10.16부마민주항쟁 기념행사' 영화제 프로그램에도 포함돼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별강연'은 24일 오후 2시 30분 대학문화원 누마루에서 정인모 부산대 독어교육과 교수(학과장)가 연사로 자리해 "'살만한 나라, 살만한 언어'-하인리히 뵐의 문학세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정인모 교수는 석사 학위 논문인 '하인리히 뵐의 "어느 어릿광대의 견해" 연구'와 박사 학위 논문 '하인리히 뵐 소설의 인물상' 외에도 20편이 넘는 하인리히 뵐 관련 논문을 발표한 전문가로, 한국하인리히뵐학회를 역임한 바 있다.

'특별강연'과 함께 '학술문화제'가 24일 오후 3시부터 대학문화원 누마루에서 열린다. '하인리히 뵐'을 주제로 학생 발표, UCC상영, 골든BÖLL(뵐)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하인리히 뵐은 '검은 양들'로 1951년에 '그룹 47'의 문학상, '어느 어릿광대의 견해',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로 1972년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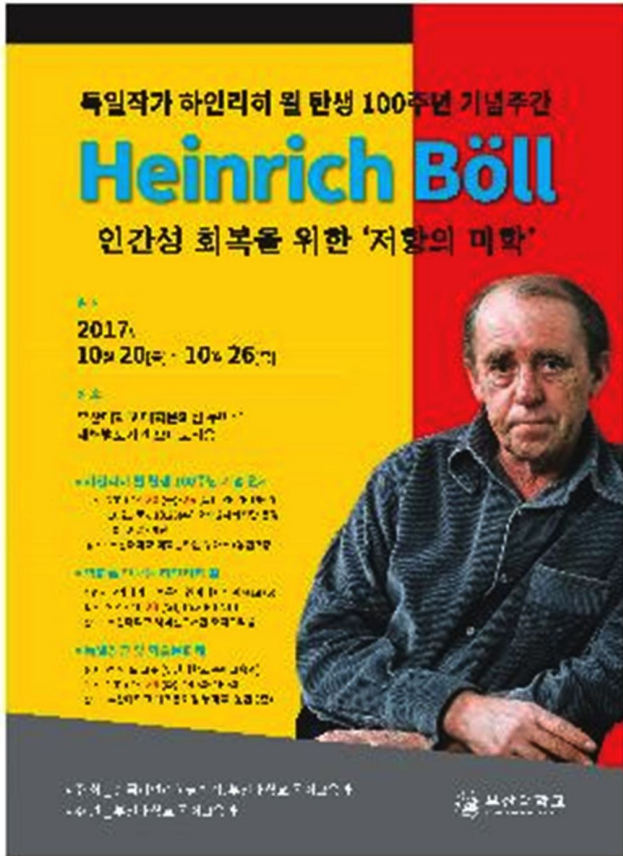
1971년 국제 펜클럽 회장이 되어 박해받는 문인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으며, 1978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시국사건으로 투옥된 김지하 시인의 석방을 청원하기도 했다.

그가 살았던 생의 발자취를 따라 부산대는 이번 행사의 부제를 하인리히 뵐 -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저항의 미학'으로 정했다. 하인리히 뵐은 반(反)군국주의자·가톨릭 좌파(左派)로서 작품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현실 변혁을 꾀했다. 희생자와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애정과 도덕적 구원을 준 그의 작품과 생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산대학교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獨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전시회·영화상영·특별강연·학술문화제 등 작가 생애·작품 소개

2017.10.19.(목) 10:16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부산대학교 독어교육과는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 기념주간' 을 공동으로 마련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학내 대학문화원 누마루와 새벽별도서관 1층 오디오토리움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을 맞아 한국하인리히뵐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기념행사로 전시회와 영화상영, 특별강연, 학술문화제 등을 마련해 그의 생애와 문학적 궤적을 소개할 예정이다.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대학문화원 누마루(농협 3층)에서 하인리히 뵐 -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저항의 미학' 을 주제로 사진과 영상·서적 등이 전시된다..

'영화로 만나는 하인리히 뵐' 행사는 23일 오후 3시 30분 새벽별도서관 1층 오디오토리움에서 개최된다.

상영작은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이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중 언론지의 폭력적인 보도 태도를 비난하고 있는 이 작품은 '부산대학교 10.16부마민주항쟁 기념행사' 영화제 프로그램에도 포함돼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강연'은 24일 오후 2시 30분 대학문화원 누마루에서 정인모 부산대 독어교육과 교수(학과장)가 연사로 자리해 '살만한 나라, 살만한 언어?하인리히 뵐의 문학세계' 를 주제로 진행된다.

하인리히 뵐은 ' 검은 양들'로 1951년에 '그룹 47'의 문학상, '어느 어릿광대의 견해',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로 1972년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1971년 국제 펜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며 박해받는 문인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다.

1978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시국사건으로 투옥된 김지하 시인의 석방을 청원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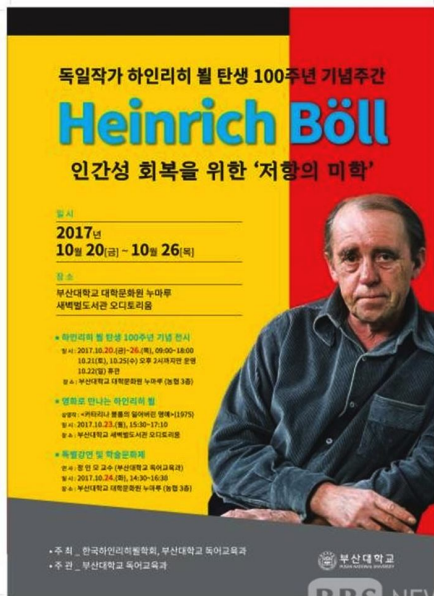
그가 살았던 생의 발자취를 따라 부산대는 이번 행사의 부제를 '하인리히 뵐 -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저항의 미학'으로 정했다.

하인리히 뵐은 반(反)군국주의자·가톨릭 좌파(左派)로서 작품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현실 변혁을 꾀했다.

희생자와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애정과 도덕적 구원을 준 그의 작품과 생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BBS PLAZA] 부산대,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2017.10.19.(목) 09:18 박찬민 기자 highha@bbs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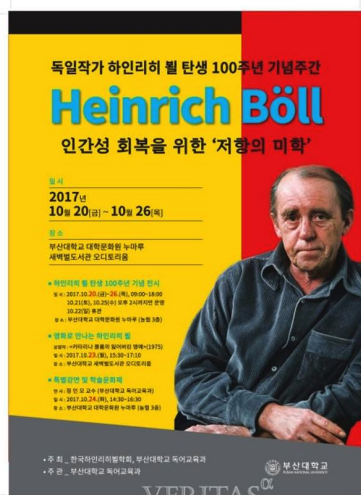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을 맞아 부산대학교에서 한국하인리히뵐학회와 부산대 독어교육과가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 기념주간'을 공동으로 마련했습니다.

부산대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학내 대학문화원 누마루와 새벽별도서관 1층 오디오리움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올해 하인리히 뵐(Heinrich Böll, 1917-1985)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로 전시회와 영화상영, 특별강연, 학술문화제 등을 마련해 그의 생애와 문학적 궤적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부산대,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 행사

2017.10.19.(목) 15:25 김하연 기자 hayeon@veritas-a.com



부산대는 독어교육과가 한국하인리히뵐학회와 20일부터 26일까지 부산대 일대에서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 기념주간'을 마련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산대는 올해 하인리히 뵐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로 전시회와 영화상영, 특별강연, 학술문화제 등을 마련해 그의 생애와 문학적 궤적을 소개할 예정이다.

기념 전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 부산대 대학문화원 누마루에서 열린다. 하인리히 뵐 - 인간성 회복을 위한 '저항의 미학'을 주제로 사진과 영상/서적 등이 전시된다.

영화로 만나는 하인리히 뵐 행사는 23일 부산대 새벽별도서관 오디오극장에서 개최된다. 상영작은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이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특별강연은 24일 부산대 대학문화원 누마루에서 정인모 부산대 독어교육과 교수가 연사로 자리해 '살만한 나라, 살만한 언어'-하인리히 뵐의 문학세계를 주제로 진행된다. 학술문화제도 24일 열린다. '하인리히 뵐'을 주제로 학생 발표, UCC상영, 골든BÖLL(뵐)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